

退溪詩에 나타난 歷史意識**

李 慧 淳*

• 目 次 •

- | | |
|----------------------|---------------|
| I. 서 론 | III. 퇴계의 역사인식 |
| II. 轉換期的 人物들의 文學的 表出 | IV. 결 론 |

I. 서 론

퇴계는 그가 존경한 朱熹가 《資治通鑑綱目》같은 史書を 편찬한 것과는 달리 체계화된 역사적 기술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쓴 2000여수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시 중에서도 본격적인 역사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퇴계시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왕소가 그의 작품을 言志詩, 述懷詩, 山水詩, 感事詩, 詠物詩, 梅花詩 등으로만 분류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¹⁾

그러나 퇴계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不少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것은 그가 史書を 많이 읽었던 점에서 규건된다. 그의 시 가운데 보이는 몇 편의 讀史詩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거니와 특히 그는 중국의 正史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讀東國史用應霖韻>이라든가, <過淸平山有感> 詩序에서 “餘讀東國通

*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연구』 제2호(1988) 게재논문

1) 王甦, 『退溪詩學』(李章佑譯, 1985, 再版, 退溪學研究所刊)

鑑”²⁾이란 구절은 퇴계가 우리나라 역사에 큰 관심을 가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특히 퇴계는 역사를 단지 과거의 사실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기왕의 퇴계학에서는 그의 철학, 사상, 교육 등 제방면의 연구가 문학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최근 국내외 학자들에 의한 퇴계시에 대한 관심 또한 상당히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계의 시세계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이를 그의 성리학적 사상체계나 사유구조와 분리하여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간주된 이는 퇴계의 교육관, 윤리관, 우주관, 학문관 등 각 방면에 걸친 연구가 결국 그의 理氣哲學의 해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보이는 것처럼 퇴계의 학문은 바로 그의 삶과 정신에 직결되어 있고, 퇴계의 삶과 정신이 가장 분명하게 표출된 것이 그의 시세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퇴계의 시문학에 나타난 역사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퇴계는 吉再, 金叔慈, 金宗直, 鄭汝昌, 金宏弼 등으로 이어지는 사림파의 맥을 잇고 있으면서, 시대적으로 사화를 고비로 사림파가 차츰 관학파를 대신하여 정치 일선에 나아갔던 16세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사림파는 주지하는 대로 조선조 건립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 세조시 김종직이 관계에 나아간 후 조광조 등 신진 사류들은 부와 귀를 아울러 누리던 관학파를 위협하면서 차츰 조정에서 득세하는 양상을 보였다.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사화는 이렇게 사림파의 새로운 위협에 필사적으로 대항하던 훈구파의 자기보호에 기인된 것이기도 한 바,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 절의정신 위에 현실참여의 의지를 가진 이들의 역사의식이 관심을 끈다. 이것은 사림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거나, 특히 사림파는 종종 그들의 이념을 문학작품을 통해 표출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의식도 직접적이기보다는 문학적 형상화에 의해 구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冶隱先生續集》卷下 <宋來熙 跋文>

따라서 본고에서 논하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역사적 전환기에 처했던 인물들의 출처에 대한 퇴계의 관점이다. 그러나 역성혁명에 의한 왕조 변혁기에 살았던 인물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퇴계의 시각은 결국 그의 역사인식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刊 《退溪全書》에 수록된 <過吉先生閻>(권1), <史記張良傳>(권1), <和陶詩飲酒>(권1), <孔明草廬>(권2), <栗里歸耕>(권2), <商山四皓>(권3), <草廬三顧>(권3)이다. 그 밖에 <威化島>, <史記子貢傳>, <史記潘岳傳>, <讀東國史> 등도 참고로 한다.

II. 轉換期的 人物들의 文學的 表出

1. 伯夷叔齊

퇴계시 중 백이 숙제를 독립적으로 읊은 시는 없지만, 다른 시에서 간혹 언급된 백이 숙제의 이미지는 다분히 부정적인 면이 있어 관심을 끈다. 퇴계는 <過吉先生閻>에서 吉再를 嚴子陵에 비유하였는 바, 이것은 길재 자신이나 기타 그를 추모하는 후대의 시인들이 대체로 길재의 행위를 백이 숙제에 비견한 것과 차이가 있고,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퇴계의 의도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백이 숙제가 주나라를 피해 은거한 것은 언뜻 보면 길재나 엄자릉, 도연명 등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퇴계의 시에 간혹 비치는 백이 숙제에 대한 그의 못마땅함은 무슨 의미일까. 퇴계가 도연명을 읊은 <栗里歸耕>을 보자

卯金刀 劉가가 나라를 훔쳐 기세가 하늘까지 넘치는데
 강가 마을에서 국화를 따는 이 어진 이가 있네.
 수양산에서 굶어죽은 백이 숙제는 속이 너무 좁지 않은가.

남산의 맑은 기운 더욱 초연하네.³⁾

이 시는 도연명의 초속적인 은일을 그리면서 특히 도연명처럼 은거하던 인물들을 병렬하여 詩意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承句와 結句의 도연명에 대한 묘사는 각기 起句, 轉句와 대구가 된다. 承句의 도연명이 “국화를 따다”는 起句의 劉裕가 “나라를 도적질하다” “기세등등하다”와 대비되는데 이것은 평화로움, 자연과의 조화와 비윤리성, 어지러움 등의 의미를 함축하므로, 결국 承句의 국화를 따는 모습은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임을 강조한다. 周敦頤가 풀이한 대로 국화가 隱逸을 비유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도연명의 은일은 도덕성을 내포한다. 結句는 도연명이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면서 유연히 바라보던(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남산을 내세워 도연명의 超俗의인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남산의 아름다움, 초속성은 바로 轉句의 백이 숙제가 餓死한 수양산과 대비된다. “굶어죽다”는 가난, 빈궁, 소외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自意的인 아사라는 점에서 거부와 부정을 뜻하는 바, 퇴계는 백이 숙제의 아사를 편협한 행위로 단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퇴계는 도연명의 은일은 한 개인의 기호에 의한 현실이탈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를 현실의 부정, 비도덕성에 대항한 행동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아사한 백이 숙제를 단순히 은거한 도연명과 비교해서 비판적인 안목으로 본 점이다. 물론 이 시의 본의는 백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연명을 높이 추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자 이후 仁者의 이름을 확고히 해온 백이 숙제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의미를 좀 더 정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역시 도연명의 시를 화답해서 지은 <和陶詩飲酒>에도 백이 숙제가 언급되어 있다.

근대의 은자는 蘇雲卿이요, 현대의 은자는 鄭子眞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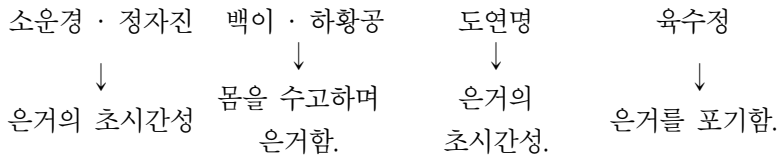
3) <陶山全書>一, 卷之二, <栗里歸耕>

卯金竊鼎勢滔天, 擷菊江城有此賢, 餓死首陽無乃隘, 南山佳氣更超然.

종적을 숨김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로지 순박한 데로 돌아가고자 함이라.
 천 년 세월 만약 흐르는 번개처럼 지나간다면
 일만 가지 일 다시 옛 것이 새로워지겠네.
 백이는 본래 주나라를 찾아간 바도 있었으나
 황공은 끝내 진나라를 피해 살았네.
 옛날부터 영결스런 선비들은
 끝내 풍진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성현이 세상을 구하고 싶은 마음
 어찌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함에만 있으리오.4)

이 시는 고금의 은자들을 열거하여 도연명과 비교하면서 특히 시간을 초월하여 빛나는 그의 은거정신을 찬양하고 있다. “천년세월이 마치 흐르는 번개 같고”라든지 “만사가 옛 것이 다시 새롭게 되네.”, 또는 “백세 뒤에도 아침 저녁처럼 다정하네” 같은 것은 지나간 오래 전의 일을 다시 현재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서 과거의 은거가 단지 과거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똑같이 그 생생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퇴계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이 시에서 은일했던 많은 선비들을 거론하면서도 이들과 도연명의 차이를 부각시킨 점 또한 주목된다. 의미상으로 각 은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대비되고 있다.



4) 《退溪全書》一, 卷之一. <和陶詩飲酒>

近代蘇雲卿, 漢時鄭子真, 逖迹意何如, 聊欲還其淳, 千歲如流電, 萬事更故新, 伯夷本歸周, 黃公竟避秦, 古來英傑士, 終不墜風塵, 聖賢教世心, 豈必夙夜勤……
 (下略)

“거침없는 큰 물결 속에서도 오직 그대만이 길을 잃지 않았네”라는 찬미는 결국 이 시에서 열거된 다른 은거자들과의 대비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대비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 근거는 이 시에서도 연명에 대한 찬사가 시작되는 “탁월하도다, 시상땅의 도연명옹이여”의 바로 앞 귀절에 “성현이 세상을 구하고 싶은 마음, 어찌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함에만 있으랴”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침 저녁으로 수고한” 성현으로 퇴계는 시에서 거론된 백이 숙제와 夏黃公을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듯한데, 사마천의 《史記》〈列傳〉에 의하면 은나라 고죽군의 아들인 백이와 숙제는 서로 왕위를 사양하다 결국 둘이 함께 노인을 잘 부양한다고 소문이 난 서백 창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그러나 당시 서백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신주를 수레에 싣고 은나라 주왕을 치려함을 알고 이를 극렬 간하나 듣지 않으므로 결국 수양산에 은거하고 끝내 아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산사호의 경우는 그들이 진의 학정을 피해 은거했으나 후에 한고조가 척부인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 할 때 조정에 들어와 세자를 지켜주고 후에 다시 은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은거양상도 다른 것으로, 퇴계의 “伯夷本歸周, 公竟避秦”의 귀절에는 백이의 불행한 죽음과 상산사호의 천수를 다한 행복한 결말이라는 암시가 함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이와 하황공의 차이가 어떻든지 이 시에서 퇴계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성현의 救世는 백이나 하황공식의 ‘수고’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연명식의 조용한 은거를 통해 후세인들에게 모범을 드리움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퇴계는 이 시에서 遯迹=淳朴과 風塵=洪流의 이원적 세계를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전자가 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퇴계의 遺集 外篇에는 詩家 중 본받을 이로 도연명을 거론하는 가운데 시가에서 도잡은 유가에서 백이와 같음을 말하는 글이 있다.⁵⁾ 그는

5) 《退溪全書》四, 遺集卷之七 外篇, 策, 問云云.

먼저 시가에서 도잡 외에 두보를 거론하면서도 도연명은 시가 중 원류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최우선적으로 배우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 퇴계는 學詩의 道와 학문의 도는 같은 것으로 비록 백이, 이윤이 孔門에서 높이는 인물들이지만 맹자가 學을 논하면서 백이 이윤으로 자처하지 않고 공자를 배우기를 소원한 것을 특별히 거론하여 결국 백이가 시가의 도연명과 같은 수준이 아님을 암시했다. 이러한 입장은 퇴계가 도연명을 칭찬한 논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 그는 도연명이 “친품이 크고 밝으며, 학문은 깊고 넓으며” 절의를 지켜 속세를 벗어난 표준으로 二姓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높였다고 하면서, 그의 시가 담백하고 한가롭고 고아하며, 句格에 얽매이지 않고 造語가 자연스럽고 뜻을 세움이 순박하며 옛스러운 것은 결국 그 절의가 중심에 근본함이 이미 두터워서일 것임을 말하고 있다. 도연명과 백이의 유사함은 ‘맑음’(淸)에 있는 것으로 퇴계는 판단했는 바,⁶⁾ 이러한 특성은 바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그들의 절의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연명을 백이보다 한층 더 높은 위치에 올려 놓으려는 것은 백이의 절의에 대한 퇴계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준 관점과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 商山四皓

일찍이 갓에 오줌 뿌리는 한고조 섬기는 것 부끄러워 했는데
 폐백 받고 따라 돌아와 아녀자의 요구를 들어주었네.
 천년이후 고상한 이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응당 그 당시 곧 산으로 다시 돌아온 탓일테지.⁷⁾

6) 淵淵.

…故 論者謂詩家之視陶潛 猶孔門之視伯夷 豈不以淵明之於詩 獨得其淸高厚雅之一節而能造其極 猶伯夷之於聖人 獨得其淸而能造其極也歟.

7) 《退溪全書》一, 卷之三, <商山四皓>

溺冠曾恥事龍顏, 應幣還隨兒女間. 尙得高名千載後, 應緣當日再還山.

상산사호는 東園公, 綺里季, 夏黃公, 甬里先生을 가리킨다. 이들은 진의 학정을 피하여 상산에 숨었다가 진을 평정한 한고조가 그 태자를 바꾸려 할 때 留侯의 책략을 받아들여 呂后가 후한 예물로 부르자, 이에 응해 조정에 나아가니 결국 한고조는 태자를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기><유후세가>에 의하면 이들 4인은 한이 통일한 후 출사할 생각이 있었으나 유방이 선비를 좋아하지 않아 갓을 쓰고 오는 선비가 있으면 갓을 벗겨서 오줌을 그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상산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명성을 아는 劉邦이 불렀으나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만이 한고조가 마음대로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 <商山四皓>는 명풍도의 畫題詩이다. 이 시는 ‘따라가다’(還隨)와 ‘다시 돌아오다’(還山)의 대립이 핵심을 이루는데, 이것은 다시 ‘應幣’와 ‘高名’의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高名과 還山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환산은 갓에 오줌 뿌린 황제와 폐백의 유혹을 물리친 사호의 정신적, 물질적 승리를 의미한다. 결국 퇴계에게 있어 산은 후세에 高名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산으로 다시 돌아온 상산사호는 승리자로서 퇴계의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 시는 起, 承句에서 상산사호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시작된다. 그들이 은거한 것은 갓에 오줌뿌리는 황제의 무례와 모욕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후한 선물을 받고 수치로 여겼던 그 세계에 잠시만이라도 돌아갔다는 점에 비판을 받는다. 轉句의 尙은 그렇기 때문에 반전의 놀라움을 표출하면서 結句의 再還山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상산의 사호를 詩化할 때 소재로 주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을 하산할 수 있게 만든 留侯의 뛰어난, 그들이 오게 된 동기가 된 한고조와 戚夫人, 呂后 등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상산사호의 시에서 제일 많이 불리워지는 것은 장자방의 계략이다. 예를 들면 元의 秋澗은 <四皓圖> 3수와 또 다른 <四皓圖> 시를 남겨 이들에 대한 그의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 전자의 제3수에는

후세 사람들은 단지 유씨 천하를 안존시킨 것만 말하고
유후의 계략이 더욱 기이했음을 말하지 않네.⁸⁾

라 했고 또 다른 사호도에서도

산속의 날들이 태평스러운데
넷물 마시고 芝草를 먹으며 즐거움이 남다르다.
만약 유후에게 용납되지 못했다면
응당 사람과 돼지가 서로 일을 더럽히게 했으리.⁹⁾

라고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시인이 찬양하는 것은 이 네 노인들이 깨끗한 물, 신령스런 풀을 먹고 자락하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위태로운 현실, 인륜이 허물어지는 최악의 현실에 대해 공헌한 점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유후의 계략에 의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사실상 사호를 읊은 것이기보다는 유후를 찬미한 노래이다.

상산사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시에서도 발견된다. 고려 후기 崔瀼은 <四皓歸漢>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한고조가 장량의 기이한 꾀로 왕조의 공업을 세웠으니
호걸들을 지휘하기 마치 아이들을 부리듯 하네.
가여워라 하얀 머리의 상산의 객도
유후의 계획 속에 떨어졌더라.¹⁰⁾

최해의 시가 상산사호의 ‘歸漢’을 다루는 점은 퇴계가 이들의 ‘還山’을

- 8) 四部叢刊 《秋澗先生大全文集》권26, <四皓圖三首>
…後人只說安劉重, 不道留侯策更奇.
- 9) 四鄭叢刊 《秋澗先生大全文集》권27, <四皓圖> …若被留侯容不得, 須教人彘事相汚.
- 10) 《東文選》권20 <四皓歸漢>
漢用奇謀立帝功, 指麾豪傑似兒童. 可憐皓首商山客, 亦墮留侯計劃中.

다루고 있는 것과 극히 대조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퇴계가 그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한 문제에 별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에 관심이 간다. 사호가 창업하자마자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을 漢나라를 안정시킨 공로를 퇴계는 선물을 받고 아녀자를 따라간 것으로 지나치게 폄하하고 있는 점이나, 그가 상산사호를 인정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들이 다시 궁중을 떠나 은거지로 돌아왔다는 것뿐이라는 점 등은 퇴계에게 있어서는 선비로서의 명분 확립이 사호가 이룩한 어떤 현실적인 성취 이상으로 중요함을 말해준다.

3. 張良

하늘이 기이한 책략 황노에게 의탁하니
진시황은 놀래 넘어지고 항우는 몸을 찢겼네.
가히 알겠노라 무욕으로 속세를 초탈할 수 있었음을.
그물 속 티끌된 한신, 팽월과는 다르지¹¹⁾

이 시는 起, 承句와 轉, 結句가 대립관계를 이룬다. 起, 承句에서는 장량이 뛰어난 계략으로 진나라와 초패왕을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운 그의 세속적 공로를 찬양한다. 먼저 그가 황석공에게서 받았던 천서는 황석공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서 황석공을 통해 부여받은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졌던 신선, 방사적 이미지를 경감시켰다. 承句에서 장량이 박랑사에서 力士를 시켜 진시황을 저격하고, 해하에서 초패왕을 사면초가가 되게 하여 끝내 항우 스스로 목을 찢러 자결하고 한왕의 부하들이 그의 몸을 쪼개게 한 계략은 장량의 천부적 능력에 근거된 것임을 퇴계는 암시한다.

그러나 퇴계에게 있어 장량이 진시황을 저격하고 항우를 멸망시킨 역사적인 공로는 바로 세욕이며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11) 《退溪全書》卷之一, <史記張良傳>

天授奇謀託異神, 秦皇驚倒項分身. 可知無欲能超世, 不似韓彭一網塵.

起承句의 장량의 능력과 성취, 轉句의 무욕과 초세는 갑작스런 연결같이 보일 정도로 의미가 반전되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轉句에서 시적 화자로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반전의 거리를 “可知”라는 서술어로 메꾸고 있는데 “가히 알 수 있다”라는 깨달음의 주체는 단순히 시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을 끈다.

확실히 퇴계는 놀랄만한 성취를 이룩한 장량이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해서 현실의 비극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장량 일개인에게 국한된 사실로 보지 않고 이를 ‘무욕하면 누구나 초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런 일반화를 독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結句에서 장량과 반대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비극적 생애를 마친 구체적인 인물들을 예증하여 보충하고 있다. 한신과 팽월은 장수로서의 용맹함과 세운 공로는 장량 못지않아 각각 齊王과 梁王에 봉해졌던 인물들이지만 결국 욕망 때문에 벼슬자리에 연연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이었다.

장량을 그린 시는 대체로 그 소재가 漢室 창업의 공로, 상산사호와의 관계, 황노에게서 받은 天書, 韓나라를 위한 복수, 공을 세운 후 은거한 것 등이다. 益齋는 <장량>이라는 시에서 그가 모국 韓나라를 위해 애쓰던 일을 노래하고 있다.

한나라 오세의 임금 은혜 충분히 못갚아
진나라 원수 갚으려 맹세하였네.
한왕 또한 팽성의 흙이 되고 말았는데
젓가락 빌린 계책 굳이 사양하겠는가.¹²⁾

여기서 익재는 장량의 전략가로서의 특성이나, 공을 이룬 후 세상 부귀에 연연하지 않고 은거함으로써 한신과 같은 비극적 종말을 갖지 않았던 비범성보다는 그가 한나라 원수를 갚기 위해 진시황을 시해하려던

12) 《益齋集》<益齋亂藁> 권4, 張良.

五世君恩未足酬, 誓將心力快秦讎. 韓王又作彭城土, 借箸何辭轉一籌.

일을 오히려 거론한다. 또한 전구에서는 六國의 뒤를 세워주려는 酈食其의 말을 들으려 한 한고조를 그가 식사하던 젓가락을 빌려 여덟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면서 힘써 막은 것을 읊고 있는데, 이것은 항우가 팽성에서 이미 韓王을 살해하였기 때문으로, 만약 한왕이 살아있었다면 장량의 입장이 달랐을 것임을 익재는 암시한다. 그러나 이미 한왕이 죽어 유방이 육국의 뒤를 세워주어도 한나라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장량에게는 유방을 힘껏 도와 항우를 이기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장량이 자신의 고국 韓나라와 五代를 모시던 왕의 원수를 갚는 길이 된다는 것이 익재의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왕권지속 우선의 측면에서 역사적 인물의 공과를 평가하려던 익재의 시각을 알게 해주거니와, 이것은 무엇보다 장량의 마지막 처신을 중시한 퇴계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퇴계는 한 인물의 역사적 전환기에 끼친 실제적 역할보다 개인의 처신이 후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4. 劉備

초가집 세번 찾으니 예의가 부지런한데
 머뭇 머뭇 담소하며 帝王事를 처리한다.
 하늘이 誅罰하는 공업 이루지 못했음을 한하지 마시오.
 간웅이 기운 죽어 울면서 향을 나누었네.¹³⁾

이 시는 신하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수고를 아끼지 않던 유비를 그린다. 起, 承句에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 만나서 뜻을 이룬 모습을 그리고, 轉句에서는 작자가 시적 화자로서 유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結句에서는 전구에서 내린 자신의 평가를 보충하는 내용을 첨가시켰다. 이러한 시적 구조는 다른 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13) <退溪全書>一, 卷之三, 草廬三顧

草廬三顧禮勤湯, 談笑逡巡辦帝王, 莫恨天誅功未訖, 姦雄心死泣分香

起句에서 “초가집 세번 찾으니”의 의미를 퇴계는 유비의 예의와 부지런함에 국한시켰으나, “삼고초려”라는 成語에서 독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함, 인내심, 결단력, 목적 달성을 위한 의지 등이다. 陳壽의 <三國志>에는 유비가 臥龍선생을 찾으러 갈 때 동행했던 관우, 장비 등의 반발이 컸음을 기술하고 있어 유비의 제갈량에 대한 삼고초려에는 상당한 확고부동한 의지와 인내력이 요구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承句의 “談笑澹巡”은 제갈량을 만나 천하사를 논의하는 그의 태도의 겸비함과 온화함을 의미하는 바, 특히 제갈량이 결국 유비를 따라서 하산하게 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임이 암시된다.

轉句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적 화자가 직접대상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다. “한탄하지 마시오”라는 금지의 명령형은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읽혀지거니와, 따라서 이것은 유비가 天誅를 대신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 이유를 퇴계는 결구에서 조조를 비교적 자료로 내세워 보충 설명하는데, 유비가 후에 조조의 위나라에게 멸망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조조가 아니고 바로 유비라는 점이다.

퇴계는 촉한과 위나라의 대립에서 어느 것이 정통성을 보유한 나라인지 등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가 조조를 간웅으로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퇴계는 촉한을 이미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더욱 조조의 많은 일화 가운데 그가 죽을 때 遺命을 내려 남은 향을 여러 부인에게 나누어 주라 한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죽음에 직면하면서 가졌던 그의 외로움과 결핍감을 강조하여, 그는 漢을 계승하는 업적을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실패한 영웅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퇴계가 역사에서 천하를 통일한 영웅보다 유자를 예우하는 황제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것은 유교적 이념만이 나라를 지배하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통치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상산사호>에서 사호가 유자를 모멸한 한고조를 떠난 것을 당연하게 평가한 것과 일치된 입장이다.

5. 諸葛亮

《퇴계집》2권 <孔明草廬>는 삼고초려가 유비를 읊은 것과 달리 제갈량을 그린 것이다.

龍德을 깊이 간직하여 보배롭게 길렀는데
 띠이엿 다듬지 않은 집은 몸만 겨우 들어간다.
 누가 알았으리 한번 분기하여 판도가 달라져
 40년간 염광을 불어낼 줄을.¹⁴⁾

起句에서는 신출귀몰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았던 와룡선생 시절을, 承句에서는 은거시의 그의 청빈한 모습을 그린다. 承句, 結句에서는 앞의 시들처럼 시적 화자가 직접 개입하여 대상인물의 행동을 독자에게 공감시킨다.

이 시에서는 起, 承句와 傳, 結句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준다. 起, 承句에서는 “깊이 숨기다”, “띠이엿 이은 집”, “겨우”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며, 조그맣고 소박함을, 轉結에서는 “한번 솟아” “붉은 빛” 등으로 밖으로 또는 위로 뻗치는 것, 움직이며 힘찬 것, 그리고 환하고 큰 것 등을 그린다. 제목의 초려는 공명의 이러한 잠재력을 길러 준 공간으로, 실제의 크기는 몸만 겨우 들어가는 곳이지만 그속에 사는 인물의 능력은 무한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초가집은 “하늘을 돌리고” “사십년을 뻗는” 공간과 시간을 용납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起, 承句와 轉, 結句간의 이러한 극단적인 대조는 轉句에서 의미의 반전이 상당히 큼을 말해준다. 起, 承句와 轉句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誰知”라는 반어형으로, “누가 알았겠는가”라는 말은 결국 “아무도 몰랐

14) 《退溪全書》一, 卷之二, <孔明草廬>

龍德深藏自養珍, 茅茨不剪僅容身, 誰知一奮天旋轉, 嘯起炎光四十春.

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여기서 제갈량의 변신에 대한 놀라움은 퇴계 일인의 느낌이라기보다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놀라움으로 일반화된다. 轉句에서 시인이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이것을 독자 모두의 목소리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다른 시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起句의 “龍德”으로, 용덕이란 사전적 풀이로는 ‘임금의 덕’, ‘큰 덕’을 의미하지마는, 여기서 용은 제갈량 은거시의 아호인 와룡선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起, 承句의 누워있는 용에서 전, 結句의 비상하는 용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제갈량 산에서 보배롭게 기른 덕인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따라가다’에서 ‘돌아오다’로, 또는 ‘속세’에서 ‘超俗’으로의 환원구조를 보이던 앞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앉다’에서 ‘날다’로, ‘깊이 간직하다’에서 ‘한번 솟다’로, ‘떠이영 이은 집’에서 ‘하늘을 돌리다’의 동적 확대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퇴계가 중시한 것이 어떤 인물의 출신가 處인가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도덕적 수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吉再

<過吉先生閣>는 퇴계시의 권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이 시는 물을 거쳐 산으로, 그리고 봉계마을에서 집으로 옮겨가며 마침내 길재를 만난 후 다시 길재에게 일반 세상 사람, 특히 벼슬아치를 향한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에 낙동강을 지나노라니 / 강물은 어이 길기도 한지
 낮에 쉬며 금오산을 쳐다보니 / 산세는 울창하게도 서리었네
 맑은 물은 두터운 땅을 꿰뚫고 / 깎아지른 절벽은 하늘을 찌르네
 거기에 봉계란 마을이 있나니 / 바로 이 산수 속에 들어 있지
 선생께서 그 속에 숨어사니 / 조정에선 마을을 표창하겠지

큰 의리는 꺾을 수 없는 것 / 어찌 세상을 저버렸다 이르라
 천년 조대의 그 맑은 기풍이 / 다시금 이 나라를 격동시켰네
 고려를 부지하지는 못하였으나 / 강상을 세워 영원히 굳혔다네
 장부란 절개를 귀히 여기나 / 평생에 알아주는 이 드물어
 아! 이 세상 사람들아 / 행여 높은 벼슬일랑 좋아말게¹⁵⁾

총 20행의 시에서 길재가 살던 산수와 촌려가 10행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이 산수의 묘사가 길재의 평가에 차지하는 의미를 말해주기도 한다. 아침에 ‘지나가고’ 낮에 ‘쳐다보는’ 낙동강과 금오산은 수평과 수직을 아우르면서 길재를 포용하는 하나의 우주로서 작용한다. 이것은 길재가 <上宰相啓>에서 “만길이나 높은 금오산은 집을 찾아 날으는 석양하늘의 새들을 바라볼 만하고, 유유히 흐르는 봉계는 천리를 들러 석양에 뛰어 노는 고기들을 굽어볼만 합니다.”라는 말에서도 암시된다.¹⁶⁾ 여기서 길재가 ‘바라보고’ ‘굽어보고’ 하는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거니와, 특히 길재가 석양을 언급한 것이 흥미있다. 이것은 금오산과 봉계가 안식처이고 귀속처임을 암시한다. 동시에 이 물과 산은 만만하고 반반한 큰 여유와 도량, 맑고 날카로움과 땅을 뚫고 창공을 능가하는 저력과 기개를 아울러 보여준다.

이처럼 퇴계는 길재의 고향을 찾으며 산수의 객관적 묘사로 길재의 품성을 말하고 있지만, 길재 역시 본래 산수를 통해 품성의 함양을 도모했음이 나타나 양자간의 내적 일치성을 보여준다. 먼저 산수를 통해 길재는 세욕을 제거한다.

저 푸르른 대나무 언제나 굳은 절개

15) <<退溪全書>一, 卷之一, <過吉先生閣>

朝行過洛水, 洛水何漫漫. 午憩望鰲山, 鰲山鬱盤盤. 清流徹厚坤, 峭壁凌高寒. 有村名鳳溪, 乃在山水間. 先生晦其中, 表閭朝命頒. 大義不可撓, 豈曰辭塵寰. 千載釣臺風, 再使激東韓. 扶持已無及, 植立永堅完. 丈夫貴大節, 平生知者難. 嗟爾世上人, 慎勿愛高官.

16) <<治隱先生言行拾遺>上, 附.

시냇물 쉬지 않고 탐욕을 씻어주네.
 마음에 티가 없이 맑고도 고요할사
 알패라 이제부터 도의 진미 있는 줄.¹⁷⁾

길재도 은거에 수반되는 갈등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산수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정화에 의해서 세욕을 제거하고 평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바, 진정한 도는 바로 이럴 때 나타난다고 본다.

그런데 퇴계의 산수에 대한 대립적인 묘사는 봉계라는 마을이 그 가운데 위치하여 양면을 다 포괄하고 조화시키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다시 길선생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 세계의 중심을 이룬다. “先生晦其中”에서 “회”는 시간적으로는 어두움, 그름이고 행동으로는 숨어사는 것을 의미하여 바로 다음 구절의 “表閭”가 보여주는 찬란함, 겉으로 드러남과 극히 대조를 이룬다.

산수의 묘사로 길재의 인품, 기개, 절의의 면모를 간접 묘사한 퇴계의 이 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大義不可撓，豈曰辭塵寰”으로 이 구절에서 퇴계는 다른 시에서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특히 “不可” 같은 부정법이라든가, “어찌”(豈)와 같은 반어법은 시적 화자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면서 독자에게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성을 띄운다.

여기서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길재가 벼슬을 받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 사는 것을 속세를 버린 은거와 구분한 점이다. “큰 의리는 꺾을 수 없는 것, 어찌 세상을 저버렸다 이르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길재의 봉계에서의 생활은 의리 때문이요 세상을 버린 은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역사적 전환기에 야은이 취한 태도, 다시 말해서 조선조에서 그를 불렀을 때 상서하고 옷을 떨치며 돌아온 것은 대의 확립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은의 행동은 현실세계의 포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는 고려가 불의했건, 또는 조선조 건립이 정당했건가와 는 상관없이 이것보다 항상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17) 윗책, <偶吟>

《퇴계언행록》에 의하면 제자가 “이색은 마땅히 전 임금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 하였으니 포은과 야은이 절개를 지킨 것은 과연 신씨를 위해서입니까.” 라고 질문하니 “이런 말을 한 것은 물론 그러한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분들의 한 때 일로서 의심해서는 안될 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신씨라 할지라도 우리 임금이 이미 아들로 삼았으니 포은과 야은이 섬긴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⁸⁾ 여기서도 규견되는 것처럼 퇴계는 왕조의 정통성의 문제보다 군신과 신하의 윤리에 더 큰 관심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역사인식의 논리는 “고려를 부지하지는 못했지만 강상을 세워 영원히 굳혔다네.”라는 다음 행에서 포은처럼 고려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아닌 길재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퇴계는 고려의 멸망이나 조선의 건국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강상을 지키는 도리를 야은이 이룩한 것을 찬미하는 것이다. 더욱 귀한 것은 그의 결단이 외로운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장부란 절개를 중히 여기나 평생에 알아주는 이가 드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것은 퇴계가 이것을 벼슬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집념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길재가 이룩할 수 있었던 성취는 大義—綱常—大節—勿愛高官에 의한 것이지만 퇴계는 길재의 행위를 일반화시켜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대의를 설정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바로 인간의 상승욕구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화 작업은 특히 “아아 세상 사람이여 행여 높은 벼슬일랑 좋아말게”라고 경계하는 구절에서 그 극치를 이루고 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퇴계가 길재의 은둔을 엄광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길재의 행위는 보통 伯夷·嚴光·陶潛에, 그의 효성은 閔子騫에 비교되었다. 李甫欽의 제문에 의하면

큰 절개는 백이에 비길만 하고 지극한 효성은 민자건에 부끄러움이 없

18) 《退溪先生言行錄》

도다. 이미 무너진 강상을 부식하시고 쓰러져 없어진 선비의 기풍을 격려하였도다.¹⁹⁾

라 하였고, <宣祖賜祭文>에는 “우주의 강상을 붙들여 세우고 일월같은 절의를 드날리니, 七里의 淸風이요, 三徑의 高節이로다.”라고 하여 길재를 엄광·도연명과 동일시하고 있다.²⁰⁾

길재 자신은 <伴宮偶吟>에서 “몸은 비록 남보다 특이한 것 없지만 백이 숙제 그와 같이 절개를 지키리.”(身雖徒衆無奇特, 志則夷齊餓首陽)라 하였고, <辭太常博士箋>에서는 “僞宗이 폐망하는 때를 당해서는 畫邑의 王蠋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것처럼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였고, 眞主가 일어난 뒤에는 주나라 곡식을 사양하고 들어간 백이 숙제가 되지도 못하였습니다.”²¹⁾라고 하여 비교적 백이 숙제에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가 백이 대신 엄광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퇴계가 詩作할 때에 시어의 선택이나 用韻 등에 있어 극히 세심히 배려한 점을 생각한다면 그가 엄자릉을 선택한 것도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재의 연보에 의하면 그가 조정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은 것은 정종 2년으로 당시 태종이 태자로 동궁에 있으면서 그를 부른 것이다. 조선조 개국 이전 태종이 학궁에 들어가 글을 읽는데 이때 태학생 길재는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으로 서로 추종하며 학문을 닦아 정의가 매우 두터웠다고 한다.

태종이 즉위하자 그를 불렀는데 나아가지 않다가 독촉하는 명을 받고 서울에 오니 태상박사가 제수되었는데 길재가 이를 사양하고 귀향했다는 것이다. 그의 기상은 백이 숙제와 다름없겠으나 그의 실제 족적은

19) <治隱先生言行拾遺>中卷, <李甫欽祭文>

20) 뒷책, <宣祖賜祭文>

21) <治隱先生言行拾遺>上卷, <附辭太常博士箋>

오히려 한나라 광무제와 함께 유학했고 그가 즉위한 이후 벼슬을 끝내 사양한 엄자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가 특히 엄자릉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처경의 유사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길재를 백이 숙제의 인물유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퇴계는 도연명처럼 물러나 조용히 국화를 따고 엄자릉처럼 한가롭게 낚시질하면서 후세에 명교를 세워 준 인물들을 찬양했고, 백이처럼 현실의 부정, 부조리에 정면으로 대결하여 목숨을 바치는 유형의 인물은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 않다.

퇴계는 특히 이 시에서 높은 벼슬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었다. 이것은 그가 길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려 한 것이 대의의 발양인지 세욕의 경고인지 궁금하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퇴계는 역사가 대의에 의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세욕에 의해서 부정적 방향으로 굴러간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계시에서 암시하는 것이 “豈曰辭塵寰”이라면 길재는 오히려 높은 벼슬에 대한 초연함이다. 은둔이란 세욕을 끊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어진 벼슬에 대한 사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III. 퇴계의 역사인식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퇴계는 그의 역사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술이 많지 않으나 이렇게 시문을 통해서 보여준 역사적 전환기의 인물들에 대한 그의 시각은 결국 그의 역사인식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 다룬 몇 인물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 각각 하나의 유형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길재처럼 신왕조의 벼슬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 상산사호처럼 은거했다가 필요에 의해 출사했다 다시 은거한 사람들, 장량처럼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일을 이

룬 후 오히려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한 사람, 제갈량처럼 처음은 은거하다 끝내 관직을 갖고 활동하다 죽은 사람, 유비처럼 직접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 등, 이들은 역사적 전환기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출처 양상을 모두 포괄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다룬 시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은 대상 인물에 대한 품평이 시적 형상화에 의해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시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달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퇴계의 태도는 과거 역사가의 기술을 회의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퇴계가 《史記》〈子貢傳〉을 읽고 쓴 시에서 자공이 노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오·월·진나라를 다니면서 유세하여 천하 대세를 변화시킨 사실을 읽으면서 “진실로 사마천의 사기가 끝내 믿기 어렵구나, 누가 푸른 하늘 위해 한 점 티끌 씻어줄까”라고 하여 사마천의 기록에 회의를 표시했고, 〈過淸平山有感〉에서는 《동국통감》의 저자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동국통감을 읽을 때 괴이하게 여긴 일이 있었다. 당시 사관이 자현을 논평한 말 중에 그를 깊이 헐뜯어서 심지어는 그를 가리켜 탐욕스럽고 더럽고 인색하다 하였으니 아아 슬프다 어찌 그리 심했던가. …어디에 이제 사관처럼 가혹한 논평이 있었던가. 옛 사관이 이 일을 빼지 않은 채 지나치게 전했거늘 뒷날 사관은 또 가벼이 그를 믿고서 급작스레 논평하였으니 그들이 아무런커녕 논평하기만을 좋아하고 남의 아름다움을 이룩해 줌을 좋아하지 않음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²²⁾

이러한 그의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은 매 인물을 시화할 때마다 작자가 직접 시적 화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입장을 노출시키는 구조를 취하게 되는데, 그의 입장은 대체로 절구의 경우 轉句에서 詩意를 一轉시킬 때 드러난다.

먼저 퇴계가 소재로 취한 인물들이 한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

22) 《退溪全書》一, 卷之一, 〈過淸平山有感序〉

가 일어나는 역사적 변혁기에 생존했던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통해 역성혁명의 당위성, 왕권의 지속, 왕조의 정통성의 문제 등에 관한 퇴계의 시각이 관심을 끈다. 퇴계는 왕권지속 위주의 측면에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지 않았음은 상산사호의 예에서 이미 보았다. 한고조가 척부인의 아들 趙王 如意에게 후사를 넘겨 주었을 경우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는 韓나라는 그 존립이 위태로웠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계가 그들의 왕권을 공고하게 한 공로를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확실히 그의 역사의식의 특이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퇴계는 천명사상을 받아들여 역성 혁명을 일으켜 천하를 차지한 주나라나 한나라, 조선조 성립의 당위성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단지 “묘금도 유가가 나라를 훔쳐”라 하여 晉을 멸한 劉宋을 비판한다든지, “하늘이 기이한 책략 황노에게 부탁하여 진시황은 놀래 넘어지고…”라 하여 漢의 건립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나라를 부지하는 일 이미 미치지 못하지만” 으로 조선조 성립의 대세를 암시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위, 오, 촉한의 삼국 중에 퇴계가 촉한을 정통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중국의 한을 계승한 나라가 삼국 중 어느 나라인지의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촉한을 세운 유비를 받아들이고 위의 조조를 간웅이라 부르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陳壽는 西晉王朝가 ‘魏晉禪讓’의 합법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교적 위에 대한 옹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가 書名을 《삼국지》라 부른 데서 규견되는 것처럼 그는 삼국을 모두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東晉의 習鑿齒는 曹魏를 부정하고 ‘以晉承漢’을 주장했다. 宋代 司馬光은 《자치통감》에서 촉한이 정통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曹魏 역시 정통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고, 이 시기를 “三國鼎立”의 “與古之列國無異”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주희는 《통감강목》을 개편하면서 습착치의 주장을 받아들여 魏文帝 黃初 2년을 漢昭烈皇帝 章武元年 등으로 통감에서 기술된 조위의 연호를 촉한 중심으로 고쳐 썼다. 이것은 그후 소설 <삼국지연의>의 작가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삼국지연의>

내용을 통해 일반인들은 축한의 정통사상을 그대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²³⁾ 퇴계의 경우도 주자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우선적으로 중시한 것은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창건한 또는 왕위를 계승한 자의 유교적 수양으로, 퇴계는 이 부분을 <聖學十圖>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후세의 인주는 천명을 받아 천위를 계승하였으니 그 책임이 지중하고 지엄한 것인지. 스스로 다스리는 도구로서 이처럼 지엄한 것은 이제까지 없었다. 그러한 즉 王公의 위에서 성내며 스스로를 성스럽다 하고, 거만하게 스스로 방사하여 마침내 억조 창생을 괴란멸망으로 빠뜨림이 또한 어찌 죽히 괴이하다 할 것인가.²⁴⁾

이것은 천명에 의해 혁명이 합리화된 왕조라도 다스리는 자가 “스스로 닦고 스스로 경계함”이 없으면 다시 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경계함”은 바로 퇴계가 가장 중시하는居敬임을 알수 있거니와, 거경이 바로 유교적 수행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상산사호시이다. 한고조는 하늘의 계책을 받은 장량이 진시황과 항우를 물리침으로써 황제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정통성을 부여받은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선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산사호는 그의 신하됨을 수치로 여겨 그를 다시 떠나 왔는 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후세에 고명을 남기게 된 이유라고 본다. 퇴계가 축한의 유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조조를 간웅이라 하여 삼국 가운데 축한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사실은 유비가 제갈량을 신하로 삼기 위한 노력에서 보여 준 尊儒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퇴계는 지나간 왕조나 새로이 창건된 왕조 모두에 특별한 정

23) 劉知漸, 「試論如何正確理解三國演義的正統思想」, 『三國演義研究論文集』(作家出版社, 북경, 1957), pp.90-91 참조.

24) <<退溪先生文集>> 卷7 <聖學十道筭> 퇴계의 성학십도에 관한 것은 高橋進의 「성학십도의 사상체계」(『퇴계학연구』 제1집, 檀大 퇴계학연구소)를 참고했다.

통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변혁기에 반드시 은거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出仕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는 도연명을 주나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백이숙제보다 높게 평가한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퇴계는 이러한 시기 출사보다는 은거를 좋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님이 그의 제갈량에 대한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퇴계가 이러한 인물들을 소재로 작품을 쓴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퇴계가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살았던 인물들을 읊은 시에서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그의 역사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퇴계가 어떤 특정 인물을 시화하면서 거기서 추출된 시의를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절구로 된 인물시 중 轉句 또는 結句에서 시인 자신의 의지를 강력히 부각시키면서 시의를 일반화시킨 것은 그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의 특징적인 개인의 역사를 일회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퇴계가 역사적 인물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훈을 끄집어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역사에서 교훈을 중시하는 태도는 그가 역사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는 순환적 역사관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백이 숙제, 장량, 상산사호, 제갈량, 유비, 길재 등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퇴계는 길재가 고려를 부지하지 못한 책임보다 강상을 세운 것을 칭찬했고, 장량이 한고조를 제위에 앉힌 공로보다는 무욕을 보여준 것을, 상산사호가 왕통을 굳게 한 것보다는 존유하지 않는 한고조를 떠난 은거한 것을 칭찬했으며, 삼고초려한 유비를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조조보다 높이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퇴계는 한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행한 인간의 실제적인 역할보다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도리를 확립하는 것

을 더욱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퇴계는 역사 역시 심성론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그의 역사관도 그의 교육이론이나 문학론이나, 정치철학 등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의 이기론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퇴계는 영원히 불멸하는 진리의 본체로서의 理를 상정했기 때문에 理는 역사 위에도 군림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理를 통해서만 역사도, 사회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그가 聖賢의 救世는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여 수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綱常을 세우는 데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길재, 백이, 장량, 제갈량 등의 역사적 인물들의 시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려 한 것도 이렇게 인간의 去就문제가 지닌 역사적 의의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IV. 결 론

본고는 퇴계시 중 역사적 변동기에 살았던 이들에 관한 시를 중심으로 퇴계의 역사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여기서 고찰 대상이 된 작품은 길재, 백이, 장량, 상산사호, 유비, 제갈량을 읊은 시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건설되는 역사적 변동기에 살았던 인물들로서 이들의 거취에 대한 퇴계의 시각은 바로 그의 역사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등장되는 인물들은 다른 시인들에 의해서도 자주 작품의 주제가 되어 시화되었던 이들이다. 그러나 각 인물에 대한 시각과 나아가서 그들의 어느 이야기가 작품화되었는가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들 시에서 다른 문인들의 입장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퇴계가 대상 인물의 실제적인 공로, 즉 멸망한 왕조를 위해 節死했다던가 또는 복수를 감행한 것,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거

나 아니면 왕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든가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 왕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퇴계가 바라는 것은 道義의 확립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중시한 것은 목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후대 영원히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의 규범이었다. 그래서 퇴계는 백이의 절사보다 도연명의 은거를, 장량의 韓나라를 위한 복수나 한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시킨 공로보다 그의 무욕을, 상산사호가 한해제를 도와 왕권을 공고히 한 공로보다 산으로 다시 돌아와 은거한 것을 더욱 의의있게 본 것이다.

제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포악한 전왕조를 멸망시키고 새왕조 건립을 가능하게 한 천명사상보다 그들의 窮理力行하는 태도를 퇴계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진과 항우를 물리쳤지만 유자를 예우할 줄 모르는 한고조를 비판하고, 역사상으로는 실패한 제왕이지만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의 겸손함과 존유의 자세를 지녔던 유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를 명시한다.

더욱 퇴계는 시에서 이들 인물의 행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어느 특정 역사적인 시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일반화될 수 있는 규범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중시하는 행동의 규범인 도의는 바로 역사의 표준이며 역사가 반드시 가야 할 기준인 理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역사의식 역시 철저하게 그의 이기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의 이러한 역사의식이 전 사림파의 것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고찰해 보지 못했으나 이것은 퇴계 자신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간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건립하는데 힘을 썼고 그러한 공로에 의해서 영화를 누리며 권력의 횡포를 자행하던 훈구파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이 정계 진출을 모색하던 사림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